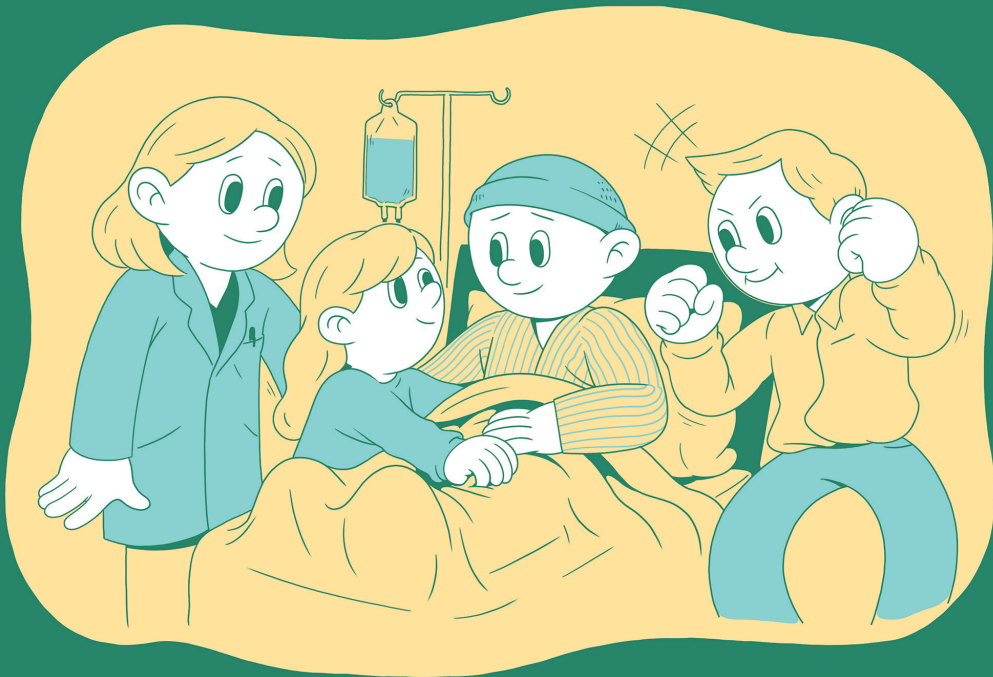


부모님의 투병 생활, 나도 함께할 수 있어요.

글_전경자 이모는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동네 만들기
에 관심이 많아.

그림_소경섭 삼촌



한국 사람들이 무슨 병으로 제일 많이 죽는지 아니? 암이 첫 번째라고 해. 두 번째인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보다도 약 3배 정도나 많으니까, 주변에서 누군가 돌아가셨다면 암 때문일 가능성이 커. 동무들의 부모님 나이인 4, 50대도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가장 많대. 그런데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환자를 위한 효과적인 치료법도 많아져서 암 발생자 세 명 중 두 명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래. 암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 곧 죽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우리 부모님이 암이라면, 정말 놀랍고 무서워서 눈앞이 깜깜해 지겠지. 하루하루 생활도 그 전과는 많이 달라질 거야. 우선 나를 챙겨주시던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기 어려울 테고, 내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늘어날 거야. 살고 있는 집도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겠지. 식구들끼리 즐겁게 웃고 떠들지 않게 되고, 맛있는 것을 먹거나 편안하게 쉴 수 없으니까. 집이 어지럽혀져 있거나 먼지가 쌓이고 어둡게 커튼을 내린 채로 있기도 하고. 편찮으신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면, 치료가 잘 되어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을까 혹시 돌아가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기도 하겠지. 집이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처럼 느껴질지도 몰라. 그래서 점점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고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 밤늦도록 운동장에서 있기도 하고, 피시방에서 게임을 계속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있으면서 가능하면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 시간만큼은 두려움을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함께 놀던 친구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집에 돌아오면 그 두려움과 외로움은 더 크게 느껴지겠지. 어떤 친구는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할 수 있어.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품은 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책만 붙들고 있는 거지.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전에 긍정적인 주문을 외우기도 한대. 막연한 걱정과 불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어리다고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고 어른들끼리 쉬쉬하면 동무들은 어떨 거 같아? 이모 생각에는 어른들이 동무들에게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내보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족이 할 일을 나눠 맡으면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은 그 뒤에도 큰 힘이 될 거야. 만일, 어른들이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동무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해도 좋아. “저도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요. 모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힘들어요.”하고.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암과 같이 위중한 병을 앓고 계시는 친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위로가 되고, 용기를 낼 수 있을 테니까.

오래전에 본 영화 <리틀 러너>가 생각나. 캐나다에 사는 소년 랄프는 오랫동안 편찮으셨던 엄마가 기적이 있어야만 살아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그 기적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찾던 중에 ‘네가 마라톤에서 우승한다면 그게 기적이야’라는 운동코치의 한 마디에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 랄프의 이런 도전을 알게 된 운동코치와 친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받으며 랄프는 달리고 또 달렸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랄프의 모습에서 엄마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었지. 동무들도 이런 영화를 보면서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나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 